

企劃論文

# 이승만과 맥아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 상 호\*

I. 서론	IV. 맥아더와 이승만의 공통점
II. 미군정기 맥아더와 이승만의 관계와 활동	V. 결론
III. 남한만의 단독정권 수립	<참고문헌>
	<국문요약>

## I. 서론

올해는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따라서 국가 전체적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많은 학술회의와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sup>1)</sup> 그러나 무엇보다 대한민국 수립을 두고 이것이 ‘건국’인지 아니면 ‘정부수립’인지에 대한 명칭 논란이 일고 있다.<sup>2)</sup> 문제는 이 용어 자체가 역사적 평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명칭을 부르는가에 따라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관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한 언론인은 한국사회에서 좌파우파를 가릴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면 1948년 8월 15일을 둘러싼 명칭에 있다고 지적했다. 즉 대한민국 출범을 ‘건국’으로 간주한다면 우파요, ‘정부수립’으로 평가한다면 좌파에 속하는 것이라고

\*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 한국현대사 전공(kennan2@aks.ac.kr).

1) 정부는 공식적으로 ‘건국60주년기념사업위원회’로 그 명칭을 명명하고 있다. 「건국 60주년기념사업위, 《서울신문》, 2008년 5월 22일.  
 2) 「건국일은 한국사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태어난 날」, 《동아일보》 2008년 4월 1일;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경향신문》, 2008년 4월 21일.

서술했다. 특히 ‘건국’은 대한민국 자체를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간주하는 것인 반면, ‘정부수립’은 대한민국 자체를 ‘남한’으로 축소해 불안정한 분단국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sup>3)</sup> 이러한 지적은 나름대로 분석적일 수 있지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용어에 대한 해설에서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비역사적·몰역사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1919년 3·1운동 직후 기독교계 인사를 중심으로 설립한 ‘한성정부’의 법통을 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 기원으로 본다면, 1948년 8월 15일은 실제적 정부수립으로써 ‘정부수립 60주년’이 정당한 명칭부여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선언적 의미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가치는 그 나름대로 인정하되, 국민·주권·정부라는 국가 3대 요소를 갖춘 실질적인 국가의 수립을 생각한다면 ‘건국 60주년’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필자가 우선적으로 이러한 용어분류를 지적하는 이유는 1948년 8월 15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우남 이승만의 해방 직후부터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식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가 초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제헌헌법에서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칭하며, 임시정부의 법통에 대한 역사적 연속성을 강조했다를 뿐만 아니라 당시의 공식적 명칭에서도 정부수립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의 단절성보다는 연속성을 고려해 본다면 건국 60주년인가 아니면 정부수립 60주년인가는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당시의 자료를 통해 보면 1948년 5월 31일 오후에 열린 국회개회식에서 이승만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식사(式辭)를 하였다. “우리가 오늘 우리 민국 제1차 국회를 열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 있게 된 데 대하여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둘째 애국선열들의 희생적 혈전한 공적과 셋째로는 우리 우방들 특히 미국과 국제연합의 공의상 원조를 깊이 감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하며 연호를 대한민국 30년 5월 31일로 호칭하였다.<sup>4)</sup> 또한 1948년 5월 31일 초대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직후 국회개원식에서 이승만은 새로이 수립되는 대한민국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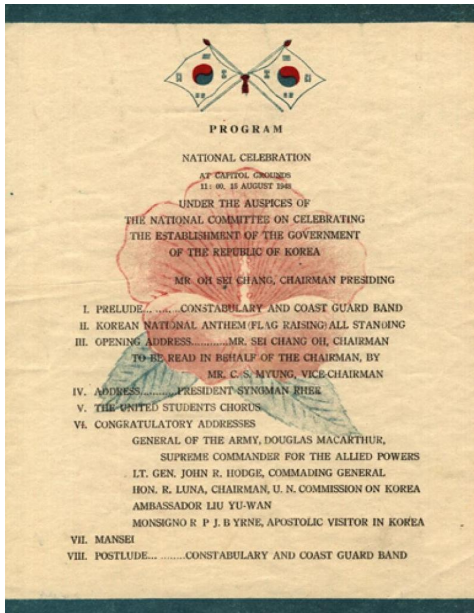
3) 「대한민국 ‘건국’인가 ‘정부수립’인가, 《연합뉴스》, 2008년 5월 13일.

4) 《서울신문》, 《동아일보》, 《경향신문》, 1948년 6월 1일.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이니 이날이 29년만에 민국의 부활일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민국년 호는 기미년에서 기산할 것이오 이 국회는 전민족을 대표한 국회이며(후략)<sup>5)</sup>

한편 1948년 7월 14일 중앙정부 수립을 경축하기 위한 준비위원회가 발족했는데 이 기구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준비위원회’였다. 이 기구는 ‘애국단체연합 중앙정부수립추진위원회’와 협력하여 기구를 더욱 확충했다. 이 기구의 총재는 이승만이었고, 회장에 오세창, 부회장에 이윤영, 명제세, 김성수, 신익희였으며, 위원장은 조병옥이었다.<sup>6)</sup> 이 기구의 준비 하에 1948년 8월 15일 중앙청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식이 거행되었다. 이승만을 비롯하여 각부장관이 배석하고 맥아더 및 하지가 단상에 도열했다. 당시 정부수립 기념일 행사의 팸플릿을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 용어가 어떻게 사

<그림> 대한민국 정부수립 기념식순



출전: 독립기념관 소장

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서 확인되듯이 1948년 8월 15일은 정부수립(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으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3·1운동 직후 설립된 한성정부와 이를 계승한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수립된 것이 바로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정부이다.

이러한 역사적 용어에 대해 좌·우파의 레테르(Letter)를 붙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또한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건국이라 칭한다면 앞으로 남북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흡수통일을 지양하고, 화해와

5) 《서울신문》, 《동아일보》, 《경향신문》, 1948년 6월 1일.

6) 《경향신문》, 1948년 7월 21일.

협력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새로운 민족국가의 건설시기에 우리는 무슨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미래를 준비하는 민족으로서, 통일 이후에 대한 새로운 준비로, 역사용어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출범과 함께 이루어진 역사적 상황 속에서 맥아더(Douglas MacArthur)와 이승만의 관계와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맥아더와 이승만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로 알려져 왔다. 특히 이승만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맥아더는 항상 그를 지지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맥아더와 이승만은 어떻게 상호인식을 하고 있었을까?

그동안 한국현대사에서 해방 3년사에 대해서는 매우 풍부하게 연구되었다. 특히 미군정사령관 하지(John R. Hodge)와 미군정기 3년간에 대한 연구는 폭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맥아더와 이승만의 관계와 이들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필자는 맥아더기념관에 소장된 Blue Binder Series<sup>7)</sup>를 통해 당시 두 인물의 시대적 인식은 무엇이고 지향점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두 인물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정부수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7) Blue Binder Series 문서철은 맥아더기념관 문서군 가운데 하나인 RG-9의 일부 문서철이다. RG-9의 공식 명칭은 전문철(Collection of Messages)로, 1945년부터 1951년까지의 전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서군에는 일본항복에 따른 작전보고서와 일본점령정책 및 주한미군과 맥아더사령부와의 전문철이 포함되어 있다. 총 164Box로 구성된 이 자료는 해방 직후부터 정부 수립기까지의 한국 내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본 논문에 사용되는 Blue Binder Series는 하드커버로 둘러싸인 진한 청색 바인더로 묶여 있는데 61개의 Binders에 총 9,500여장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전문 뿐만 아니라 편지, 비망록 등 맥아더와 그의 부관들이 가장 중요한 문서로 취급한 것을 모아놓았다. 보안등급은 최고기밀부터 기밀해제가 되지 않은 것까지 다양하다. 전체적인 자료 해제에 대해서는 이상호, 「미국 맥아더기념관 소장 한국관련 자료조사 및 해제」,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V』(국사편찬위원회, 2007) 참조.

## II. 미군정기 맥아더와 이승만의 관계와 활동

### 1. 맥아더와 이승만의 만남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있어 중요한 인물을 선정한다면 아마도 이승만과 맥아더 그리고 하지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세 인물은 정부수립 이전 한국의 정치질서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 가운데 이승만과 하지는 한 연구자가 지적하듯 ‘견원(犬猿)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sup>8)</sup> 특히 정치질서의 개편에 따른 국면전환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한편으로는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적대적 관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에 대해 공히 후견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은 바로 맥아더였다. 맥아더는 직속상관으로서 하지가 주한미군사령관의 직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를 격려하고 권한을 인정했었다.<sup>9)</sup> 한편 이승만에게 맥아더는 미국의 후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상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이승만과 그의 동료들은 맥아더를 매우 존경했는데, 우선 그의 빛나는 경력과 그의 당당하고 가부장적인 외모가 영향을 주었다.<sup>10)</sup> 무초(John J. Muccio)에 의하면 이승만은 맥아더에게 경외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맥아더가 사령관으로 있는 한 이승만을 어려워 할 필요가 없었다고 회고했다.<sup>11)</sup>

맥아더와 이승만은 정부수립시기나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맥아더는 언제 이승만을 처음 만났을까? 정병준에 의하면 맥아더와 이승만이 연계되는 것은 두 가지 계기를 통해서였는데, 하나는 이승만의 철저한 반소·반공 노선의 표방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맥아더의 고문이자 필리핀의 실력자인 로물로(Carlos P. Romulo)를 통해서였을 것으로

8) 차상철, 「이승만과 하지: 견원(견원)의 동반자」, 『이승만연구: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연세대학교출판부, 2001).

9) 한표옥은 맥아더가 자신의 철저한 반공주의와 상치되는 진보적 민주주의자인 하지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하지가 진보적 민주주의자라는 것도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한표옥, 『이승만과 한미외교』(중앙일보사, 1996) 39~41쪽.

10) Cumings, Bruce, *The Korean War, Vol II: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 233.

11) James, D. Clayton, *The Years of MacArthur, Vol. III: Triumph and Disaster, 1945-1964*,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5, p. 398.

추정했다.<sup>12)</sup> 이러한 관계에서 이승만은 1945년 7월부터 여러 차례 맥아더에게 전문을 보내 반소·반공적 입장을 강조했으며 또한 로물로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조기 귀국을 청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sup>13)</sup>

아직까지 맥아더가 언제 이승만을 처음으로 만났는지 밝혀주는 자료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오래전 이승만의 부인인 프란체스카(Francesca Rhee)가 그의 비망록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중앙일보》에서 1983년부터 1984년까지 연재한 「프란체스카 비망록」에 의하면 이승만은 오래전부터 맥아더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히고 있다.

평소에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을 그의 소령시절부터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름은 기억에 없지만 「맥아더」 장군의 장인이 「한국우호연맹(한국친우회)」(League of Friends of Korea)의 고참멤버로 대통령의 독립운동 시절 때부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sup>14)</sup>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한국친우회(League of Friends of Korea)’는 이승만이 주도한 구미위원부에서 1919년 5월 경에 설립한 단체로 3·1운동과 일본 식민통치의 실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까지 확대 조직하려 한 단체였다. 즉 이 조직의 설립목적은 1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여 한국의 독립문제를 여론화하고, 이를 통해 미국 및 유럽 열강에 압력을 가해보겠다는 취지였다.<sup>15)</sup> 고정휴에 의하면 이 한국친우회는 미국 전역과 영국 런던 등지에 조직되어 약 1만 명 정도의 회원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1921년 구미위원부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한국친우회 조직 역시 축소되었다고 추정했다.<sup>16)</sup>

어쨌든 프란체스카는 이 한국친우회에 맥아더의 장인이 고참 멤버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이승만이 맥아더를 소령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착오일 가능성이 높다. 잘 알려져 있듯이 맥아더는 1880년생으로 1899년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1903년 우수한 성적으로

12)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우파의 길』(역사비평사, 2005) 268~269쪽.

13) 위의 책, 269, 430쪽.

14) 《중앙일보》, 1983년 6월 24일.

15)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연세대학교출판부, 2004), 363~364쪽.

16) 위의 책, 364~371쪽.

졸업했다. 여러 경력을 거쳐 그가 소령으로 진급한 해는 1915년 12월이었다. 1916년 맥아더 소령은 해군부 장관 베이커(Newton D. Baker)의 군사문제 보좌관으로 정보국을 관할했고, 7월에는 공보연락장교를 역임했다.<sup>17)</sup>

1917년 4월 당시 미국 대통령인 윌슨(Woodrow Wilson)은 의회에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요구했다.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맥아더는 전시 대령계급으로 1917년 11월 당시 42사단인, 일명 무지개사단(Rainbow Division)에 소속되어 원정군으로 유럽에 파견되었다.<sup>18)</sup> 그렇다면 이승만이 맥아더를 알게 된 시기는 맥아더가 소령시절인 1915년 12월부터 1917년 11월 사이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당시 이승만은 호놀룰루에서 미국 감리교 선교부에서 운영하는 <한인기숙학교(the Korean Compound School)>의 교장직을 인수받아 <한인중앙학원(The Korean Central Institute)>으로 개칭하고, 학교운명을 책임지고 있다가 1915년 6월에 사퇴하여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었다.<sup>19)</sup> 즉 그는 하와이 각 지방을 순회하며 1916년 1월까지 재정적 모금활동을 하여 1916년 3월 10일 <한인여자성경학원(The Korean Girls' Seminary)>을 개설하고 『독립정신』 2판을 출간하는 등 주로 하와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맥아더를 알았을까?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에 의하면 두 사람이 언제 처음으로 만났는지에 대해 맥아더 측의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승만이 맥아더를 알게 된 시기는 아마도 신문지상을 통해 그의 이름을 들었을 정도에 지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승만이 맥아더의 장인을 통해 그를 알았을 확률 역시 매우 낮다. 맥아더는 두 번의 결혼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1922년 2월 브룩스(Louise Cromwell Brooks)와의 결혼이었다.<sup>20)</sup> 브룩스는 당시 이혼녀였고 그녀의 아버지 이름은 크롬웰(Oliver E. Cromwell)로 뉴욕의 부유한 변호사였는데,<sup>21)</sup> 한국친우회

17) 이상호, 「맥아더와 한국전쟁, 1945~195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 박사학위논문(2007), 20~22쪽.

18) James, D. Clayton, *The Years of MacArthur, Vol. I: Triumph and Disaster, 1880-1941*, Houghton Mifflin Company, 1970, pp. 139~146.

19) 유영익, 『이승만의 삶과 꿈』(중앙일보사, 1996), 110~114쪽; 정병준, 앞의 책, 146~150쪽.

20) James, D. Clayton, *op. cit.*(1970), p. 291.

21) *Ibid.*(1970), p. 319.

명단이 게재되어 있는 구미위원부의 기관지인 *Korea Review*지에는 그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sup>22)</sup>

한편 맥아더의 두 번째 결혼 상대자는 페어클로스(Jean Marie Faircloth)였다. 1935년 맥아더는 필리핀 군사고문관으로 임명되어 마닐라로 향하던 배안에서 페어클로스를 만났다.<sup>23)</sup> 그녀의 집안은 오랜 전통을 지닌 남부의 가문으로, 1937년 4월 뉴욕에서 맥아더와 페어클로스는 결혼했다.<sup>24)</sup>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한국친우회 명단에도 페어클로스라는 맥아더 부인의 성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맥아더와 이승만의 초기 만남에 대한 기록은 없고, 프란체스카가 자신의 비망록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했듯 이승만과 맥아더가 연계되는 계기는 아무래도 로물로를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독립운동하던 시절 워싱턴에서 「로물로」씨와 우리는 바로 이웃에 살면서 가족처럼 가까이 지냈다. 당시 「로물로」씨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기조국의 독립을 찾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했는데 나라는 달랐지만 모든 면에서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함께 투쟁한 동지였다. 대통령은 「맥아더」장군을 만날 때 「로물로」씨와 동행하기도 하고 연설을 하러 다닐 때도 「로물로」씨, 임병직씨 등 셋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다.<sup>25)</sup>

즉 맥아더와 이승만의 관계는 직접적 관계보다는 제3자였던 로물로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맥아더는 아시아 주요국가의 인물들과 친분관계를 맺고 그들의 후원자 역할을 자원했을까?

당시 맥아더는 미국에서도 아시아우선주의자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었다. 그의 이런 평가는 30여 년 동안 재임했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력에서 나타난다.

---

22) *Korea Review*, Vol. I-Vol. III(1919년 5월 21일~1921년 6월 30일). 다만 브록스의 남동생으로 前캐나다 미국대사를 역임했던 크롬웰(James H. R. Cromwell)은 1943년 현재 이승만이 1942년 1월 16일 창립한 ‘한미협회’(The Korean-American Council)의 회장이었다. 이승만이 크롬웰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그를 통해 맥아더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다. 고정휴, 앞의 책, 155, 428~431쪽.

23) James, D. Clayton, *op. cit.*(1970), p. 495.

24) *Ibid.*(1970), p. 513.

25) 《중앙일보》, 1983년 8월 13일.



1903년 소위로 임관하여 제3공병대대에 배속, 필리핀으로 파견되었던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필리핀 지역에서 사령관, 군사고문직을 거쳤고, 2차 대전 종전 직후 1951년 4월 해임될 때 까지 약 20여년을 아시아지역에서 근무했다.<sup>26)</sup>

이러한 맥아더의 아시아우선주의는 특히 공화당 고립주의자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2차대전 초기 미국 내에서는 전쟁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서부 지역 중심의 고립주의자들의 주장이 강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었다.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기습 이후에도 고립주의자들은 유럽전선보다는 태평양 전선에 미국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립주의자들의 상징적 인물이 바로 맥아더였다. 태평양 전선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한 맥아더는 전후 필리핀, 일본, 대만, 한국 등 아시아 반공주의 국가의 지도자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필리핀에서는 케손(Manuel Luis Quezon)과 로물로, 대만에서는 장제스(蔣介石), 일본에서는 요시다(吉田茂), 한국에서는 이승만 등이었다.

해임된 직후 열린 맥아더 청문회에서 맥아더는 일본과 대만을 미국의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활적 이익 지역으로 평가했다. 즉 이 두 지역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위협세력에 대한 전진교두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맥아더에게 이 지역의 정부 수반으로는 당연히 반공주의적 성향의 지도자들을 후원했다. 장제스와 요시다가 그 실례를 보여준다. 남한지역에서도 맥아더는 이러한 성향의 인물을 선호했다. 맥아더가 상정하는 반공·반소주의자로 이승만은 이러한 자신의 안보이해와 맞아떨어지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 2. 정부수립에 대한 이승만과 맥아더의 입장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과 함께 남한의 장래는 맥아더가 이끄는 태평양미 육군사령부(AFPAC)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당시 태평양미육군사령관은 맥아더로서 그는 당시 연합국최고사령부총사령관(GHQ/SCAP)과 기타 주요 직위를 겸하고 있었다.<sup>27)</sup> 1945년 10월 1일 전쟁부(War Department)에서는 맥아더에게 남한의

26) 이상호, 앞의 논문, 17~34쪽.

27) 맥아더가 당시에 역임하고 있던 지위는 연합국최고총사령관(GHQ/SCAP), 태평양미육군총사령관(GHQ/AFPAC) 등이었다. 이상호, 위의 논문, 67~73쪽.

행정구조가 소련측과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 전역에 신속히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편제할 것을 지령했다. 한편 신탁통치 회담이 1946년 초에 시작되길 바라지만, 군정으로부터 4대 강대국 신탁통치로 이전하기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sup>28)</sup>

이 시기 이승만은 맥아더의 도움으로 해외유력 망명인사들 가운데 최초로 귀국하였다. 특히 귀국길에 이승만은 1945년 10월 13일부터 3일 동안 도쿄에 체류하며 당시 맥아더 및 하지와 만나 한국정세에 대해 논의했다.<sup>29)</sup> 정병준은 이러한 맥아더와의 연계를 통한 이승만의 조기귀국은 정치적으로 이승만의 남한 정계 부각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고 평가했다.<sup>30)</sup> 당시 도쿄의 맥아더사령부에서 정치고문으로 재직하던 앳치슨(George Actcheson, Jr.)은 국무부에 보내는 전문에서 이승만의 도쿄방문을 보고하며, 남한에 전한국국민집행위원회(National Korean peoples Executive Committee)와 같은 행정부적인 정부기관 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는 하지와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전달했다.<sup>31)</sup>

신탁통치에 관한 문제가 표면화되기 이전인 1945년 11월 5일, 맥아더는 마셜(George C. Marshall) 합참의장에게 한국인들이 만족할 만한, 속칭 ‘과도적 임시정부’(AIB Korean Administration)를 시험적으로 미군 감독하에 설치, 적당한 시기가 지난 뒤 총선을 통해 국민정부를 선출케 하자는 하지의 전문을 인용하며 이를 지지하는 내용의 전문을 발송했다.<sup>32)</sup> 이때 신탁통치를 1942년부터 거론하던 랭던(William R. Langdon)도 자신의 견해를 뒤집으며, 신탁통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전문을 국무장관에게 발송했다.

28) “WARCOS to CINCAFPAC ADV”(1945. 10. 1), MacArthur Memorial Archives(이하 MA), RG 9, Collection of Messages(Radiograms), Blue Binder Series. Korea;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이하 FRUS), 1945, Vol. VI: *The British Commonwealth and The Far East*(U.S.G.P.O., 1969), pp. 1067~1068.

29) 정병준, 앞의 책, 440~446쪽.

30) 위의 책, 270쪽.

31) “The Acting Political Adviser in Japan(Atcheson) to the Secretary of State”(1945. 10. 15), FRUS, 1945, Vol. VI, pp. 1091~1092.

32)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to the Chief of Staff(Marshall)”(1945. 11. 5), FRUS, 1945, Vol. VI, p. 1112.

본인은 신탁통치를 현지의 현실적 조건에 맞출 수 없었을 뿐더러 도덕적 및 현실적 관점에서 그 적합성에 대해 설득될 수도 없었고, 따라서 우리는 이 안을 기각시켜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또 한국인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유지하는 것은 무력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신탁통치는 비현실적이다. 한국의 실제적 조건으로 볼 때, 해방된 민족이 그들의 정부 형태를 선택할 자유에 저촉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조치도 삼간다는 우리의 정책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sup>33)</sup>

현지 당국자인 하지와 그의 정치고문인 랭던조차도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 문제를 재고해 주기를 요청했던 것이다. 정용욱은 이런 랭던 구상의 가장 큰 특징은 국무부의 신탁통치안과 국제민간행정기구안을 내용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소련과의 관계에서 대단히 공세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sup>34)</sup>

1945년 12월이 들어서자 신탁통치에 대해 남한 정계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반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 중심인물이 바로 이승만이였다. 이승만은 12월 15~16일 열린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군정청으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sup>35)</sup>

한편 맥아더는 신탁통치에 대한 한국내의 반응을 기록한 하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함참에 통보했다. 하지가 보낸 「한국정세」(Korean Situation)에는 현재 분단 상황이 독립적인 한국 건설에 불가능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고, 특히 한국인들은 즉시 독립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남한은 공산주의 건설에 매우 좋은 바탕을 마련하고 있고 반대로 신탁통치에 대해 한국인들의 물리적 폭동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하지는 미국의 한국점령정책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① 38선 철폐, ② 신탁통치의 포기 성명, ③ 배상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④ 한국독립에 대한 연합국공약의 재확인, ⑤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완전한 분리 등이다.<sup>36)</sup>

33) "The Acting Political Adviser in Korea(Langdon) to the Secretary of State"(1945. 11. 20), *FRUS*, 1945, Vol. VI, pp. 1130~1133.

34) 정용욱, 『존 하지와 미군 점령통치 3년』(중심, 2003), 40~43쪽.

35) 위의 책, 45~46쪽.

36)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to the Joint of Chiefs of Staff"(1945. 12. 16), *FRUS*, 1945, Vol. VI, pp. 1144~1148.

이때 1945년 12월 16일부터 25일까지 모스크바에서는 미국·영국·소련 등 3개국 외무장관이 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했다. 여기서 한국과 관련한 조항으로 5개년간의 신탁통치가 구체화되었다. 전쟁부는 이러한 모스크바삼상회의의 성명서 내용을 맥아더에게 전달하며 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기 위해 임시한국민주주의정부(Provisional Korean Democratic Government)를 수립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미소공위를 설치하고, 4대국이 최장 5년 기한의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 협약을 작성했다고 알려졌다.<sup>37)</sup> 이는 10여일 전 맥아더가 합동참모본부에 보낸 신탁통치에 대한 포기 성명 요청을 거부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무부가 주도하는 전후처리문제가 그대로 연합국 사이에서 합의 타결된 것이었다. 잘 알려져 있듯 모스크바삼상회의에 대한 결정문이 한국 내에 알려지자 좌우파를 막론하고 이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이 일어났다. 맥아더는 이에 대한 한국내의 반응을 하지의 보고를 인용하여 합참에 전달했다. 즉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결정된 최장 5년의 신탁통치 실시 보도는 한국인들을 절망에 빠지게 했고, 소극적 저항 및 총파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sup>38)</sup>

합동참모본부는 1946년 1월 6일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결정된 결정서 제3조의 미국측 규정이행에 관한 책임을 맥아더에게 부여하며, 38선 이남의 한국에 대한 모든 행정적 책임을 맥아더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졌다.<sup>39)</sup> 하지만 맥아더는 하지와 함께 모스크바 결정서의 이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미소공동위원회의 개최에 앞서 맥아더는 이에 대한 절차상의 준비보다 소련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를 주장하고 있었다. 1946년 1월 12일 맥아더는 “미소공위에서 급박한 임무는 과도적인 한국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지만, 그 문제에 앞서 소련의 장막을 깨뜨리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는 하지의 보고를 인용하며, 본인도 이러한 제안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합동참모본부에 전달했다.<sup>40)</sup>

37) “War to CINCAFPAC ADV”(1945. 12. 28), MA, RG 9, Collection of Messages(Radiograms), Blue Binder Series, Korea.

38) “CINCAFPAC ADV to WARCOS”(1945. 12. 29), MA, RG 9, Collection of Messages (Radiograms), Blue Binder Series, Korea.

39) “JCS to CINCAFPAC ADV(MacArthur)”(1946. 1. 6), MA, RG 9, Collection of Messages (Radiograms), Blue Binder Series, Korea.

40)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to the Joint Chiefs of Staff”(1946. 2. 12), U.S.

모스크바삼상회의의 협정에 따라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미소 양국의 점령군 대표자회의인 미소공동위원회가 1946년 1월 16일 예비회담을 거쳐 1946년 3월 20일 개최되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시작부터 정당 및 사회단체의 협의대상 선정을 둘러싸고 난항을 거듭했다. 이런 상황아래 1946년 4월 4일 하지는 맥아더에게 「한국상황」에 대한 전문을 발송했다. 이 전문은 6개월 점령에 대한 요약보고였다. 하지는 한국인들이 자신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다루기 어려운 국민들이라고 토로하며, 한국인들은 ‘독립’이라는 단 하나의 공통된 인식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즉 한국인들에게 독립이란 고된일로부터의 해방이자 언행에 있어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완고하고 비협조적이며 애국심이 결여된 부류이자, 특히 강자에 대해 이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는 6개월간의 점령임무에서 만일 재건 단계에 들어선다면 한국에서는 피의 숙청(real blood purge)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좌우익의 갈등을 묘사했다. 그리고 만일 1개월 이내에 미소공위에서 진전이 없다면, 한국문제를 유엔이나 4대 강대국 회의에 이관하지는 내용을 제안했다.<sup>41)</sup> 하지의 이런 제안과 전망은 공고롭게도 후에 그대로 진행되었다.

3주 후인 1946년 4월 27일 계속해서 「한국상황」에 대해 맥아더에게 보낸 전문에서 하지는 미소양군의 점령상태가 지속되는 한, 한국중앙정부의 운영이 효과적이지 않으리라고 전망한다면서 미소양군의 철수를 제안했다. 그는 이 전문에서 소련이 현재 북한괴뢰정권을 수립하고 있고, 전한반도내의 공산주의 운동을 조직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데 하나는 소련과의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명예실추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역할을 수행한 후, 4대 강대국의 원조위원회(assisting commission)를 설립하고 각국의 군대를 최소한으로 서울에 주둔시킨 후, 미소점령군을 완전히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기간은 1947년 1월 1일 이전에 완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sup>42)</sup> 한편 랭던은 국무부에 한국지배

Department of State, *FRUS, 1946, Vol. VIII: The Far East* (U.S.G.P.O., 1971) pp. 632-633.

41) “CG USAFIK (Hodge) to SCAP(MacArthur)”(1946. 4. 4), MA, RG 9, Collection of Messages (Radiograms), Blue Binder Series, Korea.

42) “CG 24 Corps to SCAP(MacArthur)”(1946. 4. 27), MA, RG 9, Collection of Messages (Radiograms), Blue Binder Series, Korea.

최종국면까지의 변화 예정표를 제시하며 한국임시정부의 수립과 동시에 미소양군 철수를 시작해야 하고, 또한 신탁통치 기구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른 상황 예정표는 다음과 같다.<sup>43)</sup> 하지만 랭던의 국면예상은 바로 다음날 제1차 미소공위 회담이 무기한 휴회에 이르게 되자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때부터 미군정당국은 좌우합작을 진행시키게 되었다.

<표> 랭던이 제시한 국면 변화 예정표

일시	내용
1946. 6. 30.	한국임시정부의 헌장과 강령의 결정과 행정 및 고위 임원의 선출
1946. 7.	미소공위가 남한의 행정제도와 북한의 행정제도를 합병
1946. 7. 30.	임시정부의 임원, 헌장, 강령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제안이 4개국 정부에 의해 채택
1946. 8. 11.	임시정부 수립, 미소양군 군대의 철수 개시
1946. 8~11.	양 지역정부의 해체 및 통합 임시정부가 실질적인 권한 및 행정업무를 장악. 미국과 소련측의 신탁통치기구 임원 명단 작성
1946. 12~1947. 1.	신탁통치기구의 추가(영국인 및 중국인)임원 선출. 신탁통치기구 수립 및 미소공동위원회 해체
1947. 2.	미소양군 군대 철수완료

5월 23일 랭던과 테이어(Charles W. Thayer)가 작성한 전문이 하지를 통해 SCAP에 전해졌다. 이 전문에서 미군정은 소련이 한국전체에 걸쳐 유고슬라비아나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에서 사용했던 것과 다름이 없는 통일전선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히며, 만일 이를 미국이 받아들인다면 한반도 전체에 소련의 지배력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익 정치세력내의 인물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당시 우익 정치세력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김구와 이승만이였다. 위 전문은 김구에 대해 미군정당국이 김구 본인의 정치적 실수로 인해 정치적인 무대에서 사라졌다고 보고하며, 대안으로 이승만을 추천했다. 이승만은 통일에 대한 여러 형태의 의견들을 규합시키는 데 협조적이고 소련에 대해서도 유화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sup>44)</sup>

43)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Langdon) to the Secretary of State"(1946. 5. 8), *FRUS*, 1946, Vol. VIII, pp. 667-675.

44) "CG XXIV Corps to SCAP"(1946. 5. 23), MA, RG 9, Collection of Messages(Radiograms), Blue Binder Series, Korea.

하지도 위의 전문을 맥아더에게 보내면서 이에 대한 승인을 강력히 요망했다.<sup>45)</sup> 하지는 좌우합작을 동원해 정치적 결단을 이루려 계획했고, 이에 대한 지렛대로 이승만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승만은 6월 3일 미군정의 기본정책과 배치되는 일명 ‘정읍발언’을 통해 남한만의 단독정권 수립을 주장했다.<sup>46)</sup> 이는 좌우합작위원회 참여에 대한 반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하지는 이에 대해 맥아더에게 이승만이 지난 3주간의 좌우정치지도자들의 협상에 대해 참여하지도 않고 있으며 열정적이지도 않는 등,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sup>47)</sup> 1차 미소공위 협상의 결렬과 좌우합작위원회의 논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던 8월 하지는 맥아더에게 보낸 전문에서 남한의 공산당 세력들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으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신의 씨앗(seeds of mistrust)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sup>48)</sup> 또한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한국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맥아더가 한국인들에게 8·15 해방 기념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sup>49)</sup>

하지의 제안에 따라 맥아더는 8·15 해방 기념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한국인들의 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열망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것과 하지의 노고에 대한 격려였다.

본관은 진심으로 통일된 독립국가를 바라는 한국인들의 보편적이고 충만함에 대해 동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 본관은 건전하고 항구적인 경제적 기초 위에 자유롭고 독립된 한국의 건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본관은 그러한 미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나는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통일된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한국인들을 위한 노고에 대해 귀관에게 격려를 보낸다.<sup>50)</sup>

45) “CG 24 Corps to SCAP”(1946. 5. 23), MA, RG 9, Collection of Messages(Radiograms), Blue Binder Series, Korea.

46) 《서울신문》, 1948년 6월 3일.

47) “CG XXIV Corps to SCAP”(1946. 6. 19), MA, RG 9, Collection of Messages(Radiograms), Blue Binder Series, Korea; “CG USAFIK to SCAP”(1946. 6. 30), MA, RG 9, Collection of Messages(Radiograms), Blue Binder Series, Korea.

48) “CG 24 Corps to CINCPAC”(1946. 8. 5), MA, RG 9, Collection of Messages(Radiograms), Blue Binder Series, Korea.

49) “CG USAFIK to CINCPAC”(1946. 8. 13), MA, RG 9, Collection of Messages(Radiograms), Blue Binder Series, Korea.

1946년 9월 14일 하지는 맥아더에게 소련이 제안하는 미소양군 철수에 대해 “소련이 북한에서 군대를 축소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북한정권이 공산화되어 있고, 소련의 후원과 감독 하에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토대 위에 소련은 미소양군 철수를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의 입장에서 이러한 소련의 주장은 내전에 가까울 정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따라서 만일 소련이 미소양군 철수 주장을 해올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만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고 제안했다. 즉 첫째, 미소가 임시정부의 각원을 지명하고, 둘째, 임시정부의 각원들은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결정하며, 셋째, 임시정부와 함께 4대국 위원회(four-power commission)를 설립한 후, 넷째, 이 4대국 위원회와 임시정부 사이에 협정을 체결하며, 다섯째 미소 양군의 상호 철군을 기다릴 것 없이 즉시 두 지역 사이의 사람과 물자 교환의 통제를 해제하지는 것이다.<sup>51)</sup>

한 달이 지난 10월에 들어와 하지는 미소양군 철수를 둘러싸고 남한내의 군비 증강을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맥아더에게 발송했다. 하지는 소련이 북한에서 30~40만 명의 한국인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있고, 이들은 舊팔로군 지도자들에 의해 지도되고 있다고 밝히며, 우선 미군정 당국도 현지의 미군병력을 편제수준으로 채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점령군과 경찰 및 경비대를 보조하도록 우익청년군(Rightest Youth Army)이 육성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기를 원했다.<sup>52)</sup>

1946년 12월 이승만은 워싱턴으로 가서 군정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민정을 승인해 달라고 국제연합에 요청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한국의 단독정부를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루즈벨트(Anna Eleanor Roosevelt)여사, 유엔총회 중국대표 웰링턴 쿠(顧維鈞), 유엔사무총장 트리그브 리(Trygve H. Lie), 유엔총회 필리핀 대표 로물로, 대만의 장제스 등에게 전달했다. 또한 맥아더에게는 개인적으로 조사차라도

50) “CINCAFPAC to USAFIK”(1946. 8. 13), MA, RG 9, Collection of Messages(Radiograms), Blue Binder Series, Korea.

51) “CG 24th Corps to CINCAFPAC”(1946. 9. 14), MA, RG 9, Collection of Messages (Radiograms), Blue Binder Series, Korea.

52) “CG XXIV Corps to CINCAFPAC”(1946. 10. 28), MA, RG 9, Collection of Messages (Radiograms), Blue Binder Series, Korea;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to the Chief of Staff(Eisenhower)”(1946. 10. 28), *FRUS*, 1946, Vol. VIII, pp. 750~751.



한국을 방문해 주든가 아니면 자신을 일본에 초청해 달라고 간청했다. 미군정은 이승만이 이러한 탄원과 함께 맥아더와 워싱턴의 고위 당국자들에게 하지와 그의 정책을 비난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sup>53)</sup> 워 전문에서 미군정은 이러한 이승만의 행동에 대해 만일 미국이 모스크바 협정을 계속 밀고 나간다면 자신이 초대 대통령이 될 기회가 없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행해진 일련의 움직임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승만의 행동은 기만적이고 현실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당시 이승만은 하지를 비난하는 전문을 맥아더에게 발송했고, 맥아더는 이를 하지에게 알려주었다. 이승만은 맥아더에게 보낸 전문에서 “하지가 공산주의자들이 포함된 45명의 관선의원을 지명했으므로 새로운 선거를 해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를 해결할 인물은 맥아더 밖에 없으며, 하지의 정책을 변경하도록 충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sup>54)</sup> 이승만의 비난 전문을 맥아더가 하지에게 전달하자, 하지는 이에 대해 자신은 관선의원 일부가 공산주의자라는 이승만의 지적에 동의할 수 없고, 이러한 이승만의 행동은 자신이 입법의원 다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 비난이므로, 이승만에게 그가 보낸 전문을 맥아더가 자신에게 발송했다는 내용을 알려주면 매우 모욕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sup>55)</sup>

1946년 12월 31일, 하지는 워싱턴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려고 미국 고위층에게 탄원을 하고 있던 이승만의 메시지를 중간에서 검열하여 그 내용을 국무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메시지에서 이승만은 “맥아더 역시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이 비협조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나 주요 방해자들은 미 국무부내의 몇몇 인물들이다. 다만 하지가 남한에서도 공산주의 테러분자에 관한 맥아더의 정책을 따라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적었다.<sup>56)</sup>

53)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Langdon) to the Secretary of State”(1946. 12. undated), *FRUS*, 1946, Vol. VIII, pp. 775-779.

54) “CINCAFPAC to CG USAFIK”(1946. 12. 14), MA, RG 9, Collection of Messages (Radiograms), Blue Binder Series, Korea.

55) “CG USAFIK to CINCAFPAC”(1946. 12. 14), MA, RG 9, Collection of Messages (Radiograms), Blue Binder Series, Korea.

56) “Lieutenant General John R. Hodge to the Secretary of State”(1946. 12. 31), *FRUS*, 1946, Vol. VIII, pp. 785-786.

하지는 워싱턴에서 누군가가 이승만에게 그의 행동에 대한 위협성을 솔직하게 말해 줄 것을 건의하며 그 대상으로 굿펠로우(Preston Goodfellow)를 국무장관에게 추천했다. 그리고 이승만에 대해서는 그가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며, 남한 단독정부를 세우려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III. 남한만의 단독정권 수립

1947년이 되자 하지는 더 이상 모스크바삼상회담의 결정에 따라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미행정부의 결정에 회의를 갖고,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했다. 맥아더에게 보내는 1월 23일자 전문에서 하지는 한국문제에 대한 완전한 재검토가 미행정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련과 고위급 회담을 열 것을 제안했다. 또한 무기한 휴회 중인 미소공위 회담의 재개에 대해서도 한국문제에 대한 완벽한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소련과 더 이상 회담을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sup>57)</sup>

이러한 하지의 전문을 받은 맥아더는 현재의 교착상태가 한국인들에게 남북 분단에 따른 곤란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는 궁핍을 가져올 것이고, 미국에게는 극동 지역에서의 영향력과 위신을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국문제에 관한 4가지 사항을 국무부에 건의했다.

- ① 한국문제를 유엔에 이관.
- ② 한국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들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요구.
- ③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정부 사이에 실현될 수 있는 해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국과 관련한 모스크바 협정 3장을 명백히 할 수 있는 회담을 개최.
- ④ 독립국가로서 한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정치·경제적 단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미국과 소련의 최고위 대표들 사이의 회담을 개최.<sup>58)</sup>

---

57) "CG USAFIK to CINCFE"(1947. 1. 23), MA, RG 9, Collection of Messages(Radiograms), Blue Binder Series, Korea.

58) "Tokyo to Secretary of State"(1947. 1. 22), RG 59, 740.00119 Control (Korea).

맥아더가 국무부에 보낸 위 전문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947년 1월 마샬이 새롭게 국무장관에 부임하고, 미국의 對韓정책에 대한 재검토작업이 시작되면서 점령정책을 둘러싼 국무부와 맥아더사령부 사이의 대립은 점령권력의 개편논의로 진행되었다. 1947년 2월 한국문제에 대한 부간 특별위원회(The Special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Korea)가 제출한 비망록에 따르면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군정의 민간화, 고등관무관 임명, 맥아더의 정치적 책임 종식 등이 제안되었다.<sup>59)</sup>

1947년 4월 8일, 미국의 마샬 국무장관은 소련 외상 몰로토프(V. M. Molotov)에게 미소공위 재개를 제안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1947년 4월 9일 이승만은 일본을 경유, 맥아더와 회담한 후 난징으로 가서 한국 교민들에게 자신은 미국에서 미국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자세히 논의했고,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면서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곧바로 정부 구성 준비를 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4월 13일 이승만은 장제스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맥아더도 한국정부가 조속히 수립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60)</sup>

1947년 4월 21일, 워싱턴에서 귀국한 이승만은 재개를 앞둔 미소공위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sup>61)</sup> 하지에 따르면 이를 위해 이승만이 우파정당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sup>62)</sup> 하지만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우익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제2차 미소공위는 5월 22일 다시 재개되었다. 미소공위가 재개되었지만 반탁단체의 협의대상을 둘러싸고 미·소 간에 갈등이 재개되었다. 이 시기 이승만은 소련, 미소공위, 하지, 군정에 대해 반대를 표방하면서, 반탁을 부르짖고 있었고,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자신에게 남한만의 분단정권을 약속했다고 선전했다.<sup>63)</sup>

59) 이상호, 앞의 논문, 65쪽.

60) 김경일(지음)/홍면기(옮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 한중관계의 역사적·지정학적 배경을 중심으로』(논형, 2005) 139~141쪽.

61) “CG USAFIK to CINCFE”(1947. 5. 17), MA, RG 9, Collection of Messages(Radiograms), Blue Binder Series, Korea.

62) “CG USAFIK to CINCFE”(1947. 5. 19), MA, RG 9, Collection of Messages(Radiograms), Blue Binder Series, Korea.

63) “Lieutenant General John R. Hodge to the Secretary of State”(1947. 7. 16), *FRUS, 1947, Vol. VI: The Far East*(U.S.G.P.O., 1972), pp. 703~704.

1947년 7월 17일, 하지는 맥아더에게 보낸 전문에서 미소공위가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이렇게 된다면 모스크바 협정을 폐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sup>64)</sup> 그리고 미소공위의 활동을 기다리지 말고 입법부를 위한 선거 계획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65)</sup>

8월에 들어서 미소공위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하지는 미소공위가 몇 주 동안이나 지체되고 있지만 서울에 있는 소련인들은 공위자체보다는 정치적이고 선전적인 이유에서 머물러 있을 뿐이라며, 대한정책의 수세적 방어에서 벗어나 소련의 적대적 선전에 맞서 적극적인 공세를 펼 시기가 왔다고 주장했다. 즉 공산주의자들과 소련인들에게 나약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중한 태도를 끝내야 할 때라는 것이다.<sup>66)</sup>

1947년 8월 4일 한국에 관한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 on Korea)는 미국의 대한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삼부조정위원회(SWNCC)에 제출했고, 이는 SWNCC- 176/30으로 승인되었다. 이 문서는 미소공위가 결렬될 경우 9월 10일 한국문제를 유엔총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이였다. 결국 미소공위의 전망이 어두워지자 미국은 9월 17일, 독립방안이 포함된 한국문제를 유엔에 협의 대상으로 제출했다.<sup>67)</sup> 제2차 미소공위가 정식으로 종료되지 않았지만,<sup>68)</sup> 하지는 더 이상 소련과의 협상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는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20~30만 명에 달하는 소련의 북한군 증강에 대비해 남한에서도 군대 육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69)</sup> 유엔에 제출된 한국문제는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에서 「한국 독립문

64) “CG USAFIK to CINCFE”(1947. 7. 17), MA, RG 9, Collection of Messages(Radiograms), Blue Binder Series, Korea.

65) “CG USAFIK to WAR”(1947. 7. 28), MA, RG 9, Collection of Messages(Radiograms), Blue Binder Series, Korea.

66) “CG USAFIK to CINCFE”(1947. 8. 26), MA, RG 9, Collection of Messages(Radiograms), Blue Binder Series, Korea.

67) 미국이 한국문제를 유엔에 이관한 것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한국문제는 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 문제의 일환이었으므로 유엔은 이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상호, 앞의 논문, 66쪽 참조.

68) 제2차 미소공위는 1947년 10월 18일 제6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아무런 결론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공식적으로 결렬되었다.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1947. 10. 18), *FRUS*, 1947, Vol. VI, p. 837.

69) “CG USAFIK to WAR”(1947. 9. 28); “CG USAFIK to WAR”(1947. 9. 29), MA, RG 9, Collection of Messages(Radiograms), Blue Binder Series, Korea.

체에 관한 결의안으로 채택되었다. 이후 상황전개는 잘 알려져 있듯 1948년 5월 10일에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진행되었다.

1948년 5월 10일 초대국회의원 선거 직후 탄생한 국회개원일에 이승만은 최고연장자로 임시의장에 선출되었다. 국회는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7월 20일 개회되었다. 여기서 국회의장 이승만은 출석의원 196인중 180표의 압도적 다수표로 당선되었고, 부통령 선거에서는 이시영이 김구와 경합하여 2차까지 가는 투표에서 133표로 당선되었다.<sup>70)</sup>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 이승만과 부통령 이시영은 1948년 7월 24일 정·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였다.<sup>71)</sup>

이승만은 1948년 8월 11일 연합국최고사령관 맥아더에게 앞으로 개최될 독립선포기념식 겸 대한민국 정부수립기념식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장을 보냈다.<sup>72)</sup> 며칠 후인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식 단상에는 이승만, 맥아더, 하지가 나란히 도열해 있었다. 이때 맥아더는 공식사절 가운데 첫 번째로 등단해 연합국최고사령관의 지위로 축사를 하였다.<sup>73)</sup>

#### IV. 맥아더와 이승만의 공통점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있어 맥아더의 역할은 이승만에 대한 표면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배후에서 후광을 드러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맥아더와 이승만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기본적으로 두 인물은 비슷한 연배로서, 이승만이 1875년생이고, 맥아더가 1880년생이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격동기를 함께 겪었다는 시간적 유대감도 둘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이다. 또한 학벌에 대한 자부심 역시 둘 사이의 공통점이었다. 이승만은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당대 최고 수재였다. 한편 맥아더 역시 웨스

70) 《조선일보》, 1948년 7월 21일.

71) “CG USAFIK to State Dept.”(1948. 7. 24), MA, RG 9, Collection Message, Blue Binder Series, Korea; 《서울신문》, 1948년 7월 25일.

72) 《조선일보》, 1948년 8월 14일.

73) 맥아더의 축사 전문은 《한성일보》, 1948년 8월 16일 참조.

트포인트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여러 직책을 거쳐 최연소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역임했으며, 원수의 계급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공통점보다 이승만과 맥아더 사이에는 세 가지 점에서 상당히 유사한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로 이승만과 맥아더는 평화주의자들에 대해 강한 적대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승만은 자신의 저서인 *Japan Inside Out*에서 평화주의자들을 반전주창자들과 동일시하면서, 이들과 같이 국방이건, 국가의 명예이건 또는 국가 독립을 위한 것이건 간에 모든 종류의 전쟁을 거부하는 투쟁적 반전론자들을 제5열, 즉 간첩과 같이 위험하고 파괴적인 세력으로 간주했다.<sup>74)</sup> 더 나아가 평화주의자들은 활동적인 반미분자처럼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하여 위험분자라고 평가했다.<sup>75)</sup>

맥아더 역시 평화주의자를 국가안정의 적으로 간주하였으며, 평화주의를 공산주의와 같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상으로 간주했다. 1920년대 미국사회는 제1차 세계대전의 폐해를 목도하고 절대적 평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당시 미본토 3관구 사령관이었던 맥아더는 이러한 평화주의에 대해 깊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sup>76)</sup> 맥아더는 미국내의 평화운동이 1928년 켈로그-브리앙 조약, 즉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 모든 전쟁을 거부한다는 부전(不戰)조약보다 더 집요하고 영향력이 강했다고 평가했다.<sup>77)</sup>

둘째로 이승만과 맥아더는 반소·반공주의를 지니고 있었다. 이승만은 1920년 12월 상해에 도착하여 개최한 임시정부 의정원 연설에서 공산주의를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사상으로 간주했다. 즉 공산주의는 표본적 민주주의 문명국가를 구현시키려는 이념에 합치될 수 없는 이론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회는 노예생활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78)</sup> 그러나 이승만의 반공주의가 항상 표면화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승만은 귀국직후인 1945년 10월 21일에 공산당에 대한 호의적인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단합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화해제스처도 12월 19일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공산당과의

74) 이승만(저)/이종익(역), 『일본군국주의 실상』(나남, 1987), 216쪽.

75) 위의 책, 230~231쪽.

76) James, D. Clayton, *op. cit.*(1970), p. 317.

77) *Ibid.*(1970), p. 376.

78) 임병직, 『임병직회고록』(女苑社, 1964), 169~170쪽.

완전한 절연을 선언하는 방승으로 마무리 되었다.<sup>79)</sup> 서중석은 이후 수립된 이승만 정권의 극우반공체제는 자유민주주의의 제한된 범위에서 숨쉬면서 때로는 극우반공체제를 위협하는 형태의 제한된 과시즘체제로서의 극우반공체제라고 설명했다.<sup>80)</sup>

고정휴는 이승만의 반러의식은 한말 독립협회에서 활동할 때부터 드러났고, 이러한 의식이 이후 반소·반공노선으로 굳어졌다고 평가했다.<sup>81)</sup> 한편 정병준은 이승만의 반소·반공노선의 출발점은 1943년 초반이라고 보았다. 1943년 2월 16일 이승만은 미국무장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미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후원하는 소비에트한국공화국 수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sup>82)</sup> 이승만이 반소·반공 노선을 취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sup>83)</sup> 그가 1945년 국제연합 결성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격렬한 반소·반공 운동으로 명성을 얻은 이래 동아시아의 반공지도자로 부각되었고, 이는 맥아더와 연계를 갖는데 매개요인이 된 것이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84)</sup>

맥아더 역시 공산주의를 평화주의와 같이 위험한 사상으로 보았다. 맥아더는 뉴욕에서 열린 한 연설에서 러시아는 ‘빨갱이’(Red)의 위협에 빠져 있고 이제 이러한 사상이 평화주의라는 가면을 쓴 채 미국을 물들여 가고 있다며 공산주의자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냈다.<sup>85)</sup> 1930년 6월 언론기자에게 보낸 발표문에서 맥아더는 “이단은 인종주의, 공산주의, 불세비즘 등 자유정부를 위협하는 다른 사상들을 동반한다”며 공산주의를 신랄하게 비난했다.<sup>86)</sup> 맥아더에게 공산주의는 이단의 하나였던 셈이다.

맥아더의 반공주의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사건은 바로 1932년 말,

79) 김남식, 『남로당연구』(돌베개, 1984), 163~166쪽.  
 80)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1948~1950 민주주의·민족주의 그리고 반공주의』(역사비평사, 1996), 265쪽.  
 81) 고정휴, 앞의 책, 463쪽, 각주 136.  
 82) 정병준, 앞의 논문, 260~261쪽.  
 83) 미군정에 의하면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워싱턴 대표 시절, 레닌에게 몇 차례 제안을 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소련과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Manuscript in Office of the Chief of the Military History, Washington D. C. Part II, Chapter IV, 278~295쪽.*  
 84)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돌베개, 2006), 248쪽.  
 85) James, D. Clayton, *op. cit.*(1970), p. 317.  
 86) *New York Times*, 1931. 6. 3.

제대군인들이 연금인상을 주장하며 워싱턴 지역에서 시위를 전개했던 일명, 보너스행진(The Bonus March)이었다. 당시 맥아더는 육군참모총장으로써 이 시위를 진압했다. 진압 과정 중에 사상자가 발생하자 맥아더는 이를 소련의 음모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간주했다. 즉 모스크바의 지지와 지령을 받은 미국 공산당이 배후에서 이를 조종하여, 끝내는 미국 전역에 이를 확산, 정부 전복을 도모하려고 했다는 것이다.<sup>87)</sup> 맥아더는 이 사건을 계기로 철저하게 반소·반공주의를 내재화했다.

마지막으로 이승만과 맥아더는 기독교 사상에 깊게 심취해 있었다. 이승만은 3·1운동 직후 한국이 만약 독립하게 되면 동양에 있어서 처음 보는 ‘예수교국’이 될 것이라고 선전했다.<sup>88)</sup> 또한 귀국 직후의 임정요인 환영대회에서 “이제 우리는 신국가건설을 할 터인데 ‘기초 없는 집을 세우지 말자.’ 곧 만세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이 나라를 세우자”고 말했다.<sup>89)</sup> 특히 1948년 5월 30일 국회개원식에서 이승만은 선출되자마자 등단한 후 첫 일정에서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차의 회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이다. 먼저 서울시 종로갑국 국회의원 이윤영씨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를 바란다”고 하며 감사기도를 올렸다.<sup>90)</sup> 그의 첫 행보가 기독교적 의식에 사로잡혔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강인철은 이승만이 집권 이후 개신교에 특혜를 집중시키고, 다른 종교들을 직간접적으로 억압함으로써 개신교를 ‘사실상의 국가종교’로 만들어 갔다고 지적했다.<sup>91)</sup>

맥아더 역시 기독교를 늘 삶의 지표로 삼던 인물이었다. 그는 성공회 계통 집안 출신으로, 기독교와 민주주의 그리고 애국심을 늘 하나의 가치로 높게 평가했다.<sup>92)</sup> 맥아더는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을 점령지에서 구현하려고 노력했다.<sup>93)</sup> 특히 연합국최고사령관(GHQ/SCAP)으로 일본에 진주했던 맥아더는 일본을 기독교국가화하려는 복음주의적 경향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기독교 사상이야

87) James, D. Clayton, *op. cit.*(1970), pp. 382~385.

88) 고정휴, 「대한민국임시정부 구미위원부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1), 252쪽.

89) 강인철, 「한국 개신교교회의 정치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 1945~1960」,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4), 219쪽.

90) 《서울신문》, 1948년 6월 1일.

91) 강인철, 앞의 논문, 136쪽.

92) James, D. Clayton, *op. cit.*(1970), p. 575.

93) Eiji, Takemae, *Inside GHQ: The Allied Occupation of Japan and Its Legacy*, New York: Continuum, 2002, p. 7.



말로 일본을 문명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자 일본을 평화애호국으로 만드는 도구라고 간주했다. 즉 그가 혐오하던 공산주의에 대한 백신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다.<sup>94)</sup> 맥아더는 자신의 개인적 신앙을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필리핀과 중국의 장제스 정권으로도 전파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평화주의자들에 대한 반감, 반소·반공주의, 기독교 사상이라는 세 가지 공통점은 공감을 넘어서 이승만과 맥아더를 연결하는 일종의 가교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이러한 두 인물의 공통점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이승만 정권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통일을 이루겠다는 반소·반공주의에, 기독교가 사회 전체의 특혜집단으로 성장하는데 토대를 마련해준 기독교반공정부로 등장하게 된다.

## V. 결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은 해방 이후 한반도의 독립적이고 단일민족국가 건설이라는 민족의 염원과 달리 남한만의 단독정권 수립으로 결말지어졌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문의 신탁통치를 둘러싸고 국내 정치세력의 갈등이 증폭되었고, 결국 주한미군정사령관인 하지와 그의 상관인 맥아더 역시 국무부 주도의 임시한국정부 수립을 거부한데서 비롯되었다. 물론 1946년부터 좌우합작위원회를 추진하였으나 이 역시 실패하고 말았고, 이후 제2차 미소공위도 미국과 소련이 자국의 입장만을 강조함에 따라 별 소득 없이 종료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하지와 맥아더는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여 남한만의 단독정권 수립으로의 절차를 진행시켰다. 이는 반탁과 함께 남한만의 단독정권을 부르짖던 이승만의 정치적 승리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결국 1948년 5월 10일 선거가 이루어져 동년 5월 30일 국회가 개원되었고, 7월 21일에 이승만과 이시영이 각각 정·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승만이 이렇게 정치적 승리를 거둔 배경에는 맥아더의 지원과 후원이 역할을 미쳤다. 하지와 이승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맥아

94) Smith, Robert, *MacArthur in Korea*,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2, p. 223.

더는 제3자의 입장에서 두 인물의 조정자 역할을 했던 것이다.

맥아더는 한국 내의 어떤 정치세력들보다 이승만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여기에는 이승만과 맥아더 사이에 공통점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 사이에는 평화주의자에 대한 반감, 반소·반공주의에 대한 동조, 그리고 기독교 사상이 내재되어 있었다. 결국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기독교 반공국가로 출발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연합뉴스》; 《중앙일보》; 《한성일보》.

강인철, 「한국 개신교교회의 정치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 1945~1960」.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고정휴, 「대한민국임시정부 구미위원부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4.

김경일(지음)/홍면기(옮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 한중관계의 역사적·지정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서울: 논형, 2005.

김남식, 『남로당연구』. 서울: 돌베개, 1984.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I·II』. 서울: 역사비평사, 1991·1996.

유영익, 『이승만의 삶과 꿈』. 서울: 중앙일보사, 1996.

이상호, 「맥아더와 한국전쟁, 1945~195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이상호, 「미국 맥아더기념관 소장 한국관련 자료조사 및 해제」.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V』.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7.

이승만(저)/이종익(역), 『일본군국주의 실상』. 서울: 나남, 1987.

이완범, 『삼팔선 획정의 진실』. 서울: 지식산업사, 2001.

임병직, 『임병직회고록』. 서울: 女苑社, 1964.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우파의 길』. 서울: 역사비평사, 2005.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파주: 돌베개, 2006.

정용욱, 『존 하지와 미군 점령통치 3년』. 서울: 중심, 2003.

정용욱, 『해방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과도정부 구상과 중간과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차상철, 「이승만과 하지: 건원(건원)의 동반자」. 『이승만연구: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1.

차상철, 『해방전후 미국의 한반도정책』. 서울: 지식산업사, 1991.

한표욱, 『이승만과 한미외교』. 서울: 중앙일보사, 1996.

*Korea Review; New York Times.*

*MacArthur Memorial Archives*, RG 9, Collection of Messages(Radiograms), Blue Binder Series. Korea.

Clayton James, D., *The Years of MacArthur, Vol. I: Triumph and Disaster, 1880~1941*.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70.

Clayton James, D., *The Years of MacArthur, Vol. III: Triumph and Disaster, 1945~1964*.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5.

Cu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Cumings, Bruce, *The Korean War, Vol II: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Eiji, Takemae, *Inside GHQ: The Allied Occupation of Japan and Its Legacy*. New York: Continuum, 2002.

Smith, Robert, *MacArthur in Korea*.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2.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5, Vol. VI: The British Commonwealth and The Far East*. Washington: U.S.G.P.O., 1969.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6, Vol. VIII: The Far East*. Washington: U.S.G.P.O., 1971.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7, Vol. VI: The Far East*. Washington: U.S.G.P.O., 1972.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Manuscript in Office of the Chief of the Military History, Washington D. C.

## 국 문 요약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건국’과 ‘정부수립’에 대한 용어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용어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단상’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출범과 함께 이루어진 역사적 상황 속에서 맥아더와 이승만의 관계와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인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부터 한국의 정치질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승만은 해방 직후 유력 정치가로서 1945년 10월 16일 제일먼저 귀국하였다. 이러한 맥아더와의 연계를 통한 이승만의 조기귀국은 정치적으로 이승만의 남한 정계 부각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미 국무부가 주도하던 해방정국의 정치변동에서 맥아더는 이승만의 단정 노선을 지지했던 인물이었다. 특히 맥아더는 미소공위 회담이 결렬되자 한국문제를 유엔에 이관하라는 등 대한정책에 대한 전면적 수정을 제기하였다. 결국 한국 문제가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에서 ‘한국독립문제에 관한 결의안’으로 채택되었고 이후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이루어져,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맥아더와 이승만 사이에는 평화주의자들에 대한 반감, 반소·반공주의 그리고 기독교 사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공통점은 공감을 넘어서 이승만과 맥아더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담당했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이승만 정권은 반소·반공주의에 기독교가 사회전체의 특혜집단으로 성장하는데 토대를 마련해준 기독교 반공정부로 등장하게 되었다.

● 투고일 : 2008. 7. 15.

● 심사완료일 : 2008. 8. 28.

● 주제어(keyword) : 이승만(Syngman Rhee), 맥아더(Douglas MacArthur), 정부수립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건국(Nation Building), 미소공동위원회(US-USSR Joint Commission).